



여는 글

“2004년 새로운 시작,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지난 해는 <HKJ> 편집부에겐 참으로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다른 어느 해보다 담고 싶은 소중한 글이 많았기에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풍성한 소식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신인콩쿨에서의 우수한 성과와
김운미무용단의 10주년 기념 행사 및 공연의 성공
그리고 한양대학교 한국무용파트의 발전과 발전.
애정어린 시선으로 저희를 지켜주시는 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들이었습니다.

셀레이는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합니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이 이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더 무한한 발전의 가능성이 험계를 극복할 수 있는 인내와 성실함으로
또 다른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매우 뛰고 노력하는 혁명함과
주어진 몫에 불평불만이 없는 넉넉함과
자기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첨손함으로 멋진 웃음을 자울 수 있는
한양대학교 한국무용파트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03년의 풍성함을 발판으로
2004년, 새로운 희망을 향한 큰 포부를 품어봅니다.

<HKJ> 편집부

“우리 춤은 몸 아닌 마음의 예술”

김운미 교수, 서울무용축제서 ‘예술인의 투혼’ 과시

‘비단부채-함Ⅲ’ 통해 혼례 치르는 여성의 내면 추적해

지난 8일부터 29일까지 예술의 전당에서 열리고 있는 제6회 서울무용축제에 예술인의 투혼이 다시 한번 빛나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바로 김운미교수. 그녀는 이번 행사에 역량있는 중견무용가들의 창작무대의 ‘우리 춤 빛깔 찾기’라는 공연의 안무를 맡아 세간의 주목을 끌었다. <Weekly Hanyang>은 김 교수를 만나 춤에 대한 그녀의 식지 않은 열정을 다시 한번 들어보았다.

- ‘우리 춤 빛깔 찾기’의 의미는?

“우리 춤은嘉樂에 맞추어 느끼는 대로 숨을 고르면서 그 리듬을 몸으로 형상화한 심(心)의 예술이기 때문에 무용수의 감성이 자연스럽게 관객의 호응을 이끈다고 생각한다. 우리 춤의 빛깔을 찾는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우리 춤의 본질을 찾는 것이다. 현대에 들어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의 장르 구분이 희미해지고 있는데, 어느 장르에서도 무용에서의 창작은 발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본래의 빛깔을 탈색시키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게 때문에 이번 공연에서는 특히 우리 춤의 빛깔을 찾기 위한 생각을 담았다.”

- 이번에 공연하는 ‘비단부채-함Ⅲ’의 내용과 주제를 소개해 달라.

“비단부채-함Ⅲ’는 혼례식 전날에 갈등을 소재로,



혼례식을 거행하는 동안에 벌어지는 신부의 심리변화, 혼례식 이후 신방에서 신랑과 하룻밤을 보낸 다음날에 쪽진 머리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신부의 내면을 다룬 작품이며, 전통적인 혼례식의 진행 과정에서 볼 수 있는 여성들의 의복 변화와 관련시켜 우리 춤의 멋과 흥을 축축한 현대적 춤사위로 형상화하려했다.”

- 이번 공연의 제목인 ‘비단부채’가 지난 의미는?

“공연의 큰 흐름을 차지하는 혼례의 과정에서 집안

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남성은 대나무 부채살로 상징화하고 그에 대응되는 여성은 화려함과 고귀함의 표상인 붉은 비단으로 상징화했다. 그리고 결혼을 통해 이루어지는 음양의 조화를 부채살에 비단이 덧대 어지는 비유적 표현을 통해 묘사하려 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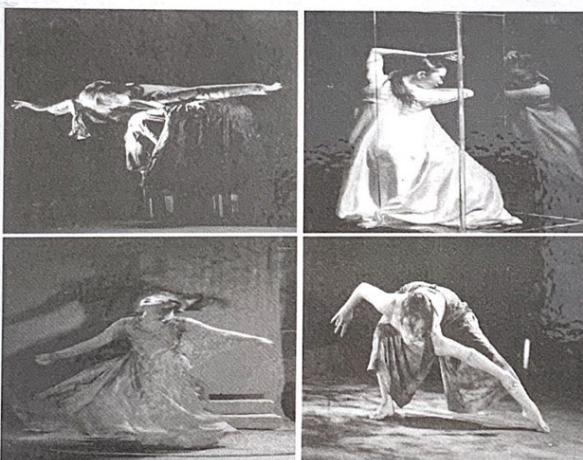
- 김운미 무용단은 유독 여성을 소재로 한 작품이 많은데.

“나 자신이 여성어서 여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가장 자신있기 때문이다. 내 공연의 큰 줄기는 ‘여자 이야기’와 ‘한국의 근대 역사’이다. 실제로 1990년대에 시대적 변화에 따른 한국 여성들의 다양한 삶의 형태를 춤으로 형상화한 바 있다. 즉 남아 선호 사상의 굴레 속에서 피폐한 삶을 당면한 것으로 받아들였던 나약한 여성의 삶(‘누구라도 그려하듯이’, 1993년)을 비롯해 남성을 통해 자신의 꿈을 이루어낸 강인한 여성인 평강공주의 삶(‘온달’, 1997년) 그리고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 통치하에서 자신을 회생하여 구국 운동을 펼쳤던 여성 독립 운동가들의 삶(‘1919’, 1999년)들이 그것이다. 물론 과거에 비해 현대 여성의 삶은 많은 변화가 있다. 그 변화의 모습을 담는 것이 내 공연의 큰 흐름을 이루고 있다.”

(한양대학교 인터넷신문 <Weekly Hanyang> 2003년 계재)

김운미 무용단 ‘묵간 2003’

각기 다른 색깔로 접근하는 진지함



소극장 공간에서의 창작작업을 모토로 한 김운미 무용단의 묵간(臥闇) 시리즈는 매번 주제를 달리한 기획공연이란 점에서 주목된다. 오방색을 주제로 내건 2003년 묵간 춤으로, 여는 세상(6월29일 씨어터제로)은 개개인 작품 완성도를 떠나 짊은 안무가들의 주제를 풀어나가는 모색의 과정들이 여러모로 다양하고 진지했다. 이는 오방색을 전체 주제로 내걸고 4명의 안무가들이 청, 백, 적, 흑의 4가지 색깔을 소재로 안무하며 나머지 황색은 중간자의 역할인 관객으로 설정해 소통성을 넓힌다는 기획의도도 눈길을 끌었다.

2 윤미영의 ‘내가 찾은 휴식’, 조재현의 ‘공’, 최자인의 ‘당’,

박인주의 ‘나무’, 이 4명의 안무가들이 각각의 색깔을 만들어내는 방법은 전제적으로 다양했다.

작품에 따라서는 움직임보다는 무용수들의 연기를 강조하기도 하는 등 오브제, 무대세트의 활용 등에서도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돋보였다. 4명 안무가들이 각각의 색깔을 만들어내는 방법은 전제적으로 다양했으며 제목에서부터 작품의 분위기가 암시되기도 했고 일상 생활에서 맞부딪치는 가벼운 터치로 소재와의 연관성을 찾는가 하면 오방색에서 말하는 우주적인 의미의 오행설에서 그 의미를 찾으려는 안무가들도 있었다.

(<댄스포럼> 2003년 10월호 ‘댄스리뷰’ 게재)

지제욱 동문(92)

한지 사용한 소품 돋보인 ‘사면(四面)’

‘Krinein-눈물(2002)’이라는 작품으로 올해 (사)장애인문화예술진흥원 공로상을 수상한 그녀는 지난 11월9일 문화예술극장 소극장에서 이루어진 한일 페스티벌에서 ‘사면(四面)’이라는 작품을 선보여 한지를 사용한 소품, 무릎과 발 움직임을 한국 춤사위들에 적절히 배합하여 다른 무용수와 구별되는 춤으로써 인상을 심어주었다는 평을 들었다.

박인주 동문(98)

“페미니즘 춤에 관심 있다”

한국무용을 전공한 박인주(23)의 깊고 호기심 많은 눈은 무언가를 말하고 있고, 그 ‘무언가’는 이제까지 해온 작업과 앞으로의 작업에 대한 반성과 희망일 터이다.

한국무용에 앞서 현대무용을 배웠기 때문인지 무대를 구성하는 춤 방법론에 있어 다른 이들에 비해 시릇 다양하고 달갑하다.

한국무용의 방법론을 차용하는 또래의 무용가들에 비해 입체적이고, 실험적인 그녀는 “앞으로 페미니즘적인 여성문제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차근차근 춤으로 풀어보고 싶고, 예술성 있는 작품이라고 해서 너무 심오하다 못해 어렵게 푸는 것보다 대중적인 움직임으로 춤의 대중화를 이루고 싶다”고 그녀는 말했다.

이영림 동문(00) 박성욱 동문(02)

한국무용협회 신인콩쿨 수석 수



그동안 열성적으로 지도해주신 김운미 교수님과 덕담과 격려로 이끌어주신 여러 선생님과 선배님들에게도 감사드린다. 뒤에서 묵묵히 지켜보며 큰 힘과 용기를 주신 부모님께도 감사드린다. 다시 한번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더욱 더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될 것을 다짐해본다.(이영림)

대회를 나가면서 상을 탈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 단지 경험 삼아 나간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런 상을 타게 돼서 정말 기쁘다. 그동안 이끌어 주신 교수님과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도와 주신 부모님,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 주신 여러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린다. (박성욱)

2003 무용과 정기공연

한국미의 아름다움 보여준 감동의 무대

2003 무용과 정기공연을 통해 한국무용을 접하면서 참으로 훌륭하고 아름다운 우리의 무용에 대해 과연 내가 얼마나 알고 있으며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 의문이 들게 만들었다.

또한 서양의 예술과 빌레에만 더 관심을 보이고 우리의 것을 먼저 알고자 하는 것에는 너무 소홀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자기반성을 하게 했다. 소고를 치는 첫 공연부터 흥이 나기 시작했다. 소고춤의 역동적이고 동적인 움직임과 정적이면서 차분한 이미지가 번갈아가며 보여지는 변화의 즐거움 그리고 절제의 미학이 돋보였다.

또한 아주 큰 동작은 없었지만 여성 특유의 아름다움인 섬세함과 부드러움이 절묘하게 조화된 절제의 정적인 움직임을 보게 되었다. 승무에서는 한국적인 미학과 종교적인 색채가 많이 기미되어 신비감미지 들게 만들었다. 소고춤의 절제의 미학과는 사뭇 다른 조신함과 정적인 이미지, 흰색 고유의 순결 및 단아의 미를 그려내고 있었다. 승무의 아름다움은 정면을 등지고 양팔을 서서히 무겁게 올릴 때 공간을 채우는 유연한 선과 긴 장점을 열기설기 그려내며 공간을 뿐 리치는 춤사위와 하늘을 향하여 길게 솟구치는 장삼 자락의 멋이다.

그리고 비스듬히 내딛는 하얀곡선 버선코의 등금은 안정감을 느끼게 했다. 승무의 아름다움에 빠져 있을 때 마지막 작품 삼고무가 시작되었고 이는 지난 해 온국민을 흥분시켰던 월드컵을 회상하게 만들었다. 대한민국의 역동적인 이미지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한국적인 작품이라 할 만큼 역동적인 힘이 발산되었다.

시원시원한 북소리와 체계적이면서도 큰 동작들의 일치성과 북소리의 강엄함이 대한민국의 21세기 비전을 표현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류동화 경제과 97



'프리다'

삶이란 캠퍼스에 그려진 무한한 열정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1920년대 멕시코의 한 마을. 세상 모든 것이 흥미의 대상으로만 보이던 사춘기 소녀 프리다는 버스가 충돌하며 일어난 인생의 첫 번째 대형사고를 겪게 된다.

한낮의 꿈이길 바란 사고. 긴 쇠창이 그녀의 글반사이리를 관통하면서 그녀 앞에 닥칠 운명이 부서진 빼 조각처럼 흐트러지기 시작했다. 첫 사랑의 실연과 함께 찾아온 하반신 마비라는 사형선고와도 같은 진단을 받고도 애써 웃을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두 손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프리다는 자신의 온 몸을 감은 하얀 석고를キャン버스 삼아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몇 년 후 방안 가득 그녀의 그림들로 채워질 무렵, 끝내 그녀는 하반신 마비라는 불명예를 씻고 성숙한 숙녀의 모습으로 당대 최고의 화가인 디에고를 찾았다가 자신이 그림을 평가해 달라고 요구한다. 직접 내려와서 보라는 당돌한 프리다의 모습에 묘한 매력을 느낀 디에고는 결국 프리다의 그림뿐 아니라 그녀와 사랑에 빠진다.



그러나 너무나 자유분방한 디에고와의 삶은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았으며 친동생마저 자신을 배신하는 광경을 보며 삶에 대한 회의를 느끼게 되는 프리다는 술과 진통제로 하루하루를 연명한다.

프랑스에서 전시회를 열며 인기 있는 여류화가가 된 프리다. 디에고 와의 고통스러운 절망과 애증속에서 그녀는 점차 자기 스스로의 고통스런 승리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술과 담배, 진통제로 버티던 날들이 가져 온 것은 황폐해진 그녀의 작은 물뿐이었다. 다시 찾아 온 하체의 고통, 썩어버린 발가락을 잘라야만 하는 시련 속에서도 꽃과 그림만 그리던 그녀의 눈에서 나는 프리다의 삶과 그림에 대한 열정을 볼 수 있었다. 그녀의 그림에서의 시선은 항상 투명하고 강한 빛을 발한다. 이는 삶에 대한 강한 의지와 자신의 고통이 오히려 예술이라는 통로로 인해 승화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닐까.

사고로 인한 정신과 육체의 고통은 그녀의 작품세계에서 주요 주제가 되어 슬프지만 행복하고, 추하지만 아름다운 모순을 만들어내고 있다. 프리다는 아픔을 안다. 그녀의 작품을 보고 있노라면 아픔을 느낀다. 디에고라는 남자에 대한, 사회주의에 대한, 자신의 아이에 대한, 그리고 프리다 자신에 대한 아픔.

절단되고 부러지고 다시 결합되는 자신의 삶이 조각맞추기 그림 같았던 프리다 칼로 두 다리보다 두 날개를 갖기를 원했던 그래서 더욱 자유를 갈망했던 그녀의 마지막 말이 내 마음을 울렸다.

"내 마지막 외출이 즐겁기를... 그리하여 다시는 돌아오지 않기를"

배정윤 무용과 02

2003 무용과 재학생 공연



2003년 무용과 재학생들은 다양한 무대를 통해 평소 같고 닦은 실력을 선보였습니다. 신록이 무대에서 쓰여야만 했다.

5월 12일 양일간 한양예술극장에서는 'Dance Festival' (월례발표회)이 개최됐습니다. 이날 월례발표회에서 무용과 2,3학년들은 자신들의 창작세계를 마음껏 뽐내 관객들로부터 호응을 이끌어 냈다. 10월 17일 세종문화회관 분수대광장 특설무대에서는 김운미 교수의 안무로 '신명이 넘치는 춤판'을 선보여 한강대 무용과의 저력을 맹껏 뽐냈다.

10월 30일에는 무용학과 정기공연이 서울교육교문화회관에서 개최됐습니다. 4학년 졸업생을 제외한 재학생들이 한 해 동안 쓰여온 기량을 한자리에서 쏟아내 강체를 빛냈습니다. 11월 14일 오후 6시 한양예술극장에서 열린 '졸업발표회'를 끝으로 한 해 무용과의 공연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2003 김운미 무용단 공연

2003년 김운미 무용단의 공연도 여러 장소에서 다채롭게 진행됐습니다. 6월 8일 지역 동문은 '불'을 주제로 첫 번째 개인공연무대를 가졌다. 6월 20일 한양대 총동문회 울산지회와 KBS울산총국의 후원으로 김운미의 우리춤 이야기 '명상(瞑想)과 신명(神明)사리'가 공연됐으며 6월 29일에는 김운미 무용단이 자랑하는 2003 북간 여섯 번째 '다섯가지 빛깔찾기' 공연이 씨어터 재로에서 선보여졌다. 김운미 무용단이 배출한 젊은 인물들의 실현정신을 느낄 수 있었던 이날 공연에서 윤미영(내가 찾은 휴식), 박인주(나무), 최자인(당), 조재현(공) 동문의 작품이 공연됐습니다. 7월 6일 부산 해운대 아외특설무대에서 김운미 교수의 안무로 '너의 이름은?'이라는 주제의 공연이 펼쳐졌으며 10월 15일 제6회 서울세계무용축제 '우리춤 빛깔 찾기' 공연(호암아트홀)에 '비단부재'가 무대에 올려졌다. 11월 9일 한·일 댄스페스티벌 주최로 제3회 동문의 '사면'이 공연됐다.

무용교사 관심 높지만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 겪어

“중·고등무용교육 관심있다” 49% … 준비는 외부레슨에 의존

(HKU)는 2003년 11월,
우리학교 무용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관심분야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 중·고등교육이 4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예술중·고등교육, 유아무용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무용교사가 되기 위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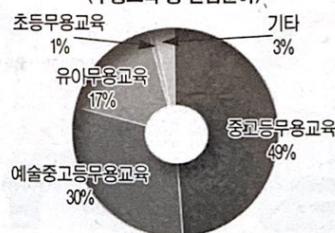
준비에서는 외부레슨이 45%로 가장 높았다. “준비하고 있지 않다”와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 등 기타 의견이 높게 나타나 학생들은 학교 무용교사가 되길 원하지만 그 구체적인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구체적인 정보 전달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 정보를 얻기가 힘들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HKU)는 무용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와 어떤 정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편집자주

〈무용교사를 위한 준비 실태〉



〈무용교육 중 관심분야〉



인터뷰 - 서경해 동문(93)

“간절히 원하면 이루지 못할 일 없다”



서경해 동문은 1997년 우리학교 무용과를 졸업하고 같은해 경기도 임용고시 체육교사에 합격해 현재 인양대안여중 교사로 근무하고 있다. 서동문에게 임용고시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물어보았다.

편집자주

- 임용고시를 준비하게 된 동기와 준비기간은.

“어릴적 꿈이 교사였고, 졸업 후 안정적인 직업을 갖길 원했기 때문에 도전했다. 대학 3학년 때부터 정보를 수집했고 본격적인 준비기간은 4학년 때와 졸업

후 1년간 조교생활을 하면서다.”

- 실제 준비과정과 방법은 어떠했나. 무용전공자로서 힘든 점은 없었나.

“지금은 우리학교 체육과 학생들도 임용고시를 많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만해도 체육과 학생들 조차 준비하는 학생이 없어서 매우 힘든 상황이었다. 무용과 학생으로 임용고시에 실시되는 체육실기 종목들을 기초부터 배울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 체육과 선배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다. 체육과 선배들이 운동하는 시간에 맞춰 따라다니며 기초부터 배우기 시작했다. 그리고 밤 늦게까지 체육관 불을 마지막으로 그면서 연습을 또 연습을 했다. 경쟁을 하게 될 체육과 학생들보다 잘 할 수는 없겠지만 비슷한 수준에는 도달해야겠다는 각오로 노력했다.”

- 필기시험 준비는 어떻게 했나.

“임용고시의 필기시험은 객관식으로 치뤄지는 교육학과 서술식으로 진행되는 전공으로 나뉘는데 모두 임용고시 전문 학원에 2년간 수강하여 전문강사의 수업을 들었다. 체육실기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무용과 학생들에게 필기시험은 당락을 좌우하는 열쇠다.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해 공부할 것을 당부하고 싶다. 시험에 출제될 유형이라든가 실기 시험 종목변경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좋은 정보를

대학을 졸업하고 무용을 전공하는 사람들 중 대부분은 아마 한번쯤 교사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임용고시에 대한 생각도 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막상 하려고 하면 어디서부터 준비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먼저 시작해야 하는지 난감해지기만 하고 시작도 하지 않고 포기해 버리는 사람도 적지 않다.

우선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교사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 이 교사 자격증은 각 학교 내에 체육교사 자격증이 있는 곳과 있지 않는 곳이 있으며, 우리학교는 교사 자격증이 있다.

학교에서는 2급 정교사 자격증이 주어지는데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다. 또한 자격증이 없는 대학은 교육대학원에서 수업을 받으면 같은 자격증이 주어진다.

그러나 이 자격증은 사립학교에만 적용되고 국·공립학교에는 사용할 수 없다. 만약 자신이 국·공립학교의 교사를 하고 싶다면 임용고시를 따로 보아야 한다.

수집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한다.”

-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힘든 점은 없나.

“모두들 생각하듯이 전문적이고 폭넓은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오는 자신감의 결여다. 처음에는 1시간 수업을 위해 며칠을 투자해 책이며, 인터넷 자료를 찾아 공부하고 연구했다. 그래도 첫 수업은 어찌나 멀리던지, 임용고시를 위해 실기 종목을 연습했다고는 하지만 교과서에 나오는 모든 종목을 연습한 것이 아니기에 학교 별령 후에도 토요일이면 한양대 체육관에 나와 교사 생활을 하고 있는 체육과 선배들의 도움을 받았다. 하지만 학생들은 내가 꼭 농구선수처럼, 체조선수처럼 힘들 원하지 않았다.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체육을 즐겁게 하길 원한다. 교사의 지도 보다는 자신들이 활동할 수 있는 실제 참여 수업시간이 많은 것을 원했다. 수업진행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배우는 것이 많았다.”

- 교사의 길을 가고자 하는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되돌아 보면 참 힘든 준비의 과정이었지만 얻게 된 결과는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보람있고 즐거운 시간인 것 같다. 자신이 간절히 원하고 노력한다면 이루지 못할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후배들이 꿈을 가지고 노력했으면 한다.”

임용고시 과목

중등교사(과목 : 체육)

★ 준비 point → 준비기간 1년

준비기	전공 : 교육학 (비율)
1월~3월	5:5
4월~8월	6:4
9월~10월	7:3
11월~12월	8:2

〈서울〉

• 교육학 : 총 60문항, 배점 0.5점 총 30점

- 출제범위 : 교육학개론,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교육용 소프트웨어 활용에 관한 과목),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기타

• 전공 : 총 17~20문항, 필기시험 70점, 환산 점수 30점

- 관련 학부 : 체육교육, 체육학, 무용(학) 및 관련 되는 학부

- 기본이수과목 및 분야 : 스포츠교육학, 체육원리, 체육사, 운동학습 및 심리, 스포츠 사회학, 운동 생리학, 운동역학, 운동실기, 체육측정 평가, 보건론, 한국무용

〈서울〉

• 논술 시험(25점, 환산점수 20점)

• 면접 시험(25점, 환산점수 20점)

• 수업실기능력평가(10점, 환산점수 20점)

• 실기시험(40점)

• 전공

- 필수종목(남·여 공통) : 육상, 체조, 수영, 배구(4종목)

- 지정종목 : 축구(남), 무용(여)

※ 각 종목별 8점(총 40점)

※ 종목별 구체적인 평가내용은 시험 당일 공개함.

춤에 대한 새로운 개안 이끌 한양 춤 연구회

“토론 · 강연 · 세미나 통해 우리 춤에 대한 이해 높여”

학
술

지난 겨울 이맘때 품, 조그맣고 작은 카페 주(ZOO)는 책을 읽고 논하기엔 충분한 장소였기에 우리는 하나님씩 모여 들기 시작했다.

나는 이론을 강의하면서 점점 내 자신이 서양만 알고 동양에 대해서는 이는 바가 없는 반족인간이라는 것과 내가 한국인이고 춤에 대한 전공자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에게 전하는 한국 춤에 대한 지식은 정말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장을 넘어서 춤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구하기 위해 노력했고, 지금도 고민중이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

이에 몇 개월에 걸친 준비 모임을 시작으로 매주 책을 읽으며 각자 맡은 부분을 정리해가며 토론을 진행했다.

따뜻한 마음으로 뜻을 같이 한 동인들이 있었기에 ‘한양춤 연구회’는 발족할 수 있었다. 공부할 때는 좋은 분에게 배우는 것만큼 모르는 것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빨리 얻을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불교무용은 봉원사의 법현(김용기) 스님이 전문가다. 법현스님은 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이자 불교무용, 불교음악에 정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현스님과는 <영산재연구>를 비롯해 <불교 무용>을 공부했다. 미국, 독일 일본, 스웨덴, 스페인 등 16



원들도 조금씩 늘어갔고 벌써 4번째의 세미나를 끝으로 2003년을 마무리했다.

공대 조교가 참석한 마지막 세미나는 공과 무용이 관계된 논문이 발표됐는데 많은 질문들이 터져 나왔고 열기가 뜨거웠다.

이렇게 ‘한양 춤 연구회’ 발족 이후 회원들은 그동안 느껴왔던 고민과 문제의식을 서로 토론하면서 많은 즐거움과 재미를 느꼈다.

2004년 ‘한양 춤 연구회’는 땀과 인내로 거듭나고자 한다. 끊임없는 정진이 바로 ‘한양 춤 연구회’의 목표이다.

춤을 올바르게 찾아가는 일에서 시작된 ‘한양 춤 연구회’의 출발은 우리를 진정 새로운 개안(開眼)으로 이끌 것이다.

이천주(한양대 박사 수료.한양대 사회교육원 교수)

매달 세째 토요일 한양대 세미나실에서는 김운미 교수 및 이천주 교수, 무용과 석박사과정 재학생들이 참여하는 ‘한양춤 연구회’가 개최되며 발표된 논문 파일은 <HKJ> 편집부 다음 카페 (cafe.daum.net/loveHKJ) ‘공부합시다’ 자료실에 게재됩니다. 많은 참여 기대합니다.

김운미 교수 학술활동

학술지 논문제재

1970년대 남·북한 무용교육에 대한 연구(<한국체육학회지> 제42권 제4호 2003년 7월)

논문발표

1970년대 북한무용교육에 관한 연구(국제대학스포츠 연맹 학술위원회 주최 2003 대구유니버시아드 학술대회. 2003년 8월22일)

논평 및 질의

교육통합 환경하에서 무용학의 발전방향(대한무용학회 주최 학술대회. 2003년 5월29일)
성년의례 ‘입사춤’의 전개양상 고찰(대한무용학회 주최 학술대회. 2003년 5월29일)
춤 정책포럼(대한무용학회 주최 포럼. 2003년 9월18일)

한양대 무용과 석·박사학위 논문

박사학위 논문

직업무용단의 내부마케팅이 조직동일시에 미치는 영향(이종래)

석사학위 논문

아동의 창의력 개발을 위한 무용교육의 실제에 관한 연구 : 초등학교 중심으로(양대승)

사회학적 관점에서 본 1990년대 한국 무용예술에 관한 연구(김지희)

무용(학)과 특성화를 위한 교육목표 연구(이정화)

무용 상해의 형태 및 원인과 예방요인에 관한 연구(황지영)

무용관련 학회 학술세미나 발표논문

제8회 한국무용과학회 학술세미나 발표 논문(2003. 5. 3)

발레에너지 소비량이 Osteocalcin 및 신체조성에 미치는 영향 / 이승범(연세대학교)

발레연기력 평정척도의 최적범주 / 배진경(한양대학교)

발목손상 예방을 위한 테이핑 방법 / 박시복(한양대학교병원)

한국무용학회 학술 심포지엄(2003. 11. 10)

21세기 문화정책과 무용산업의 방향 / 융호성(문화관광부)

공연예술 프로그램의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 김성희(경희대 경영대학원)

한국춤평론가회 정책 세미나(2003. 9. 18) “한국의 춤 정책 이대로 좋은가”

이제는 전략과 차별화 정책이 필요하다 / 장광열(무용평론가)

현 춤교육 제도의 위기와 개선의 축 / 김태원(춤평론가, 동아대 교수)

예술수준 향상과 네트워킹의 결합·무용의 국제교류 진흥방안 / 이종호(무용평론가)

투명한 운영을 유도할 정책이 우선이다 / 김채현(춤평론가)

책책책 책을 읽읍시다

한국무용사의 이해

(김혜정 외/형설출판사)

우리 전통춤, 창작춤의 변화를 연대기적으로 기술.



무용치료를 통한 아동의 표현활동

(박은규/조원사)

무용치료를 통한 표현활동에 대한 안내서.



조선 궁중무용2

(이홍구 외/은하출판사)

궁중무용 및 문학적 시가를 연구.



춘장조의 새 지평과 비평

(성기숙/현대미학사)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쓰여진 리뷰와 논평 문 수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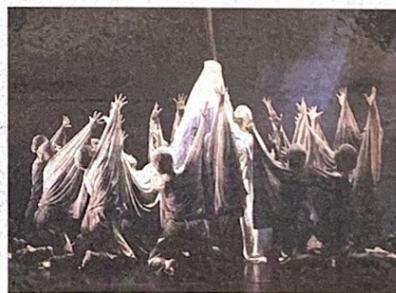
“김운미무용단과 함께 했기에 행복하였습니다”



1999년도 '1919'



1997년도 '블랙홀의 여행'



1999년도 '누구라도 그러하듯이'



2003년도 '함(函)III'-비단부채

김운미 무용단 10주년 기념식 열려



2003년 10월 15일에 세계무용축제 초청으로 호암아트홀에서 '함(函)III'를 공연했습니다. 10년만에 다시 서는 무대이며 부담감을 느끼면서도 너무도 좋았습니다. 아하시던 교수님. 공연 후 극장 로비에 다 같이 모였을 때 교수님의 설레어하시는 모습은 10년 전 그날의 모습과 변함이 없었습니다.

김운미 무용단은 1993년 4월에 첫모임을 갖고 11월의 '누구라도 그러하듯이' 공연을 준비하면서 장장 8개월이란 시간을 둔고등락했습니다. 4, 5공기식 밥을 먹던 동기들, 대학와서 처음으로 간 여름의 MT, A홀 B홀을 번갈아 가며 자다 일어나 연습하던 밤샘작업, 밤참으로 먹던 보쌈 도시락.

김운미 교수님의 작품에 대한 애착은 무서운 가리스마로, 무용수들에 대한 애정은 열정으로, 황두진 선생님의 자상함과 부드러움, 한상근 선생님의 '힘줘' 소리, 강은구 선생님의 피아노 연주곡은 왜 그리 힘들었는지, 10년이 지난 지금 얘기를 꺼내면 어찌나 할 말이 많은지 모릅니다.

8개월의 고달픈 연습끝에 '누구라도 그러하듯이'는 호암아트홀을 가득 메운 관객들과 함께 막이 올려졌고, 성황리에 막이 내려지는 순간 들려오는 그날의 박수소리와 함성은 옆에 서있는 저희들끼리 손을 꽉 잡게 하였습니다. 아무 말 없이 고개 숙인 채 훌렸던 눈들은 어느새 하나가 된 동료들의 환희의 눈물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김운미 교수님과 무용에 대한 열의로 풍처졌던 무용단의 첫 모습입니다. 저에게 있어 10년이 지난 이 시각에도 영원히 잊지 못할 가슴 뿐만의 기억입니다.

그후 10년, 많은 시행착오와 함께 발전한 오늘날 무용단의 모습. 지금 무용단의 모습은 그 때의 눈물과 김운미 교수님의 끝없는 사랑으로 인해 오늘의 김운미 무용단이 발전했습니다. 앞으로도 김운미 무용단은 한양대학교 무용학과 한국무용 선, 후배님들의 무용에 대한 열의와 함께 가야 하는 무용단입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선, 후배들이 함께 열심히 노력했으면 합니다.

이 자리를 빙어 김운미 교수님께 고개숙여 감사드리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 또한 교수님의 제자로서 무용단의 단원으로서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체욱 동문(92)

2003년 11월 21일 오후 6시 한양대학교 동문회관에서 김운미 무용단 10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이날 기념식에는 황두진, 황연희, 흥경희, 조남규, 임웅희, 태혜신, 김연신 선생께서 참석해 무용단 창단 10주년을 축하했다.

이종이 동문과 장윤기 동문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개식사와 축사에 이어 김운미 교수 담사, 무용단 소개, 케익 커팅 및 축배, 기념촬영순으로 진행됐다. 비디오 영상 시청, 만찬으로 이어진 이날 행사의 참석자들은 지난 10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김운미 무용단에 많은 발전이 있기를 기원했다.